

THE CHURCH IN TORONTO

열 두 광주리 가득히 아침부흥 제 8 주

그리스도의 십자가

2007년 12월 24일 ~ 2008년 1월 5일

제 1 부: 성경 말씀과 찬송

찬송: 410, -, 303, 857 (영 552, 431, 1137, 1133)

성경: 마태복음 27:33-53; 누가복음 23:26-49; 로마서 8:14-39

📖 마태복음 27:33-53

33.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34.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35. 저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뽑아 나누고 36. 거기 앉아 지키더라 37.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38. 이 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39.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40. 가로되 성전을 열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41.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42.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저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43. 저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지라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44. 함께 십자가에 못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45. 제 욕 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 구시까지 계속하더니 46. 제 구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47.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48.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융을 가지고 신 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꿰어 마시우거늘 49. 그 남은 사람들이 가로되 가만 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50.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51.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52.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53.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 누가복음 23:26-49

26. 저희가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로서 오는 것을 잡아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좇게 하더라 27.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 오는지라 28.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이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올라²⁹.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수태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³⁰. 그 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³¹.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³².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 가니라³³.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³⁴.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예비 뵈을새³⁵.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요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하고³⁶. 군병들도 희롱하면서 나아와 신 포도주를 주며³⁷. 가로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거든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³⁸.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³⁹.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⁴⁰.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⁴¹.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⁴².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⁴³.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⁴⁴. 때가 제 육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 구시까지 계속하며⁴⁵.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⁴⁶.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⁴⁷.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⁴⁸.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두드리며 돌아가고⁴⁹. 예수의 아는 자들과 및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 로마서 8:14-39

14.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¹⁵.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¹⁶.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¹⁷.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¹⁸.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도다¹⁹. 피조물의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나는 것이니²⁰.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

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²¹.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²².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²³.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²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매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²⁵.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²⁶.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²⁷.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²⁸.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²⁹.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³⁰.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³¹.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³².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뇨 ³³.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³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³⁵.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³⁶.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³⁷.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³⁸.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³⁹.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제 2 부: 계시와 진리를 위한 아침부흥

제 8 주 : 그리스도의 십자가

☞ ☞ ☞ ☞ ☞ 월요일 ㉞ ㉞ ㉞ ㉞

아침부흥을 위한 말씀

📖 마태복음 27:34

34.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

시고자 아니하시더라

📖 **누가복음 23:34**上

34.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

감동과 진리를 위한 읽기

십자가와 쓸개 탄 포도주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의하여 끌고다로 인도되어 즉시 십자가에 못박히려 할 때 『병사가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 하시더라』. 그 당시에 십자가의 형벌은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었으므로 당시의 율법은 사람이 십자가에 못박히기 전에 쓸개 탄 포도주를 주어 마시게 하는 것을 허락했다. 쓸개 탄 포도주는 오늘날의 외과 의사가 사용하는 마취제만큼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때에는 쓸개 탄 포도주는 사람이 느끼는 고통을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었다.

여기에서 주 예수님의 특별한 점은 쓸개 탄 포도주를 마시려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은 십자가에서 못박힐 때 모두 쓸개 탄 포도주를 마시려 했지만 오직 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박힐 때 마시려 하지 않으셨다. 십자가-사람의 십자가-에 달린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 고통을 느꼈으므로 고통을 덜어 주는 쓸개 탄 포도주가 필요했던 것이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쓸개 탄 포도주를 거절했다. 만약 십자가에 못박힐 때 쓸개 탄 포도주를 마셨다면 그 십자가도 사람의 십자가이지 우리 주님의 십자가가 아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는 쓸개 탄 포도주가 없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안에는 쓸개 탄 포도주가 필요 없었던 것이다. 사람이 쓸개 탄 술을 그분의 입 근처에 갖다 대었기 때문에, 그분도 맛보고 그것이 쓸개 탄 술임을 알았고 고통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마시려 하지 않으셨다.

여기서 우리는 「왜?」 라는 의문을 제기할 것이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십자가에서는 고통의 느낌이 발생했지만 주님께게는 그러한 느낌이 생기지 않았기 때문이다(이것은 신체상의 느낌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신체상으로는 그분에게도 고통의 느낌이 있었다). 다른 사람에게서는 고통의 느낌이 충만했기 때문에 쓸개 탄 술이 필요했던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이 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십자가에서 못박힐 때 영적인 면에서 그러한 고통의 느낌이 없었기 때문에 쓸개 탄 술이 필요 없었던 것이다.

누가복음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기도하셨음을 말해 준다. 이것을 가리켜 쓸개 탄 포도주가 필요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있는 이 사람은 굴욕과 학대를 받고 채찍을 맞았고 사람의 수치와 핍박과 거절을 받았으며 사람의 심판과 정죄와 극도로 잔해함을 받았다. 그러나 그분은 머리를 들면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그분 안에 고통의 느낌과 원망하는 느낌과 핍박받은 느낌이 없음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람에게는 쓸개 탄 포도주가 필요하지 않았다. 속에 고통의 느낌이 없는 사람이므로 그 고통의 느낌을 감소하기 위한 쓸개 탄 포도주가 필요하지 않았던 것이다. (워치만 니 전집 2집 제17권 제18장 『십자가와 쓸개 탄 포도주』, 137~138쪽)

☞ ☞ ☞ ☞ ☞ **화요일** ☞ ☞ ☞ ☞ ☞

아침부흥을 위한 말씀

📖 **야고보서 1:2-3**

2.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3.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앎이라
감동과 진리를 위한 읽기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이 그들의 기쁨이 아니라는 것임

고통의 느낌이 있는 사람, 쓸개 탄 포도주가 필요한 사람은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많은 자녀들이 표면적으로는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하나님 외의 안위와 희락을 결코 추구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질 때 그의 이웃들이 모두 알게 된다. 많은 사람이 이층에서 십자가를 질 때 아래 층에 있는 사람이 알게 된다. 많은 사람이 그의 얼굴과 표정과 소리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보라, 내가 여기에서 십자가를 지고 있다.」 라고 전한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소문이 나면 그것은 십자가가 아니라는 것이다. 소문이 나자마자 십자가는 없는 것이다. 그 소문이 바로 쓸개 탄 포도주이다. 사람은 안위와 사랑을 찾는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고통이 있을 때 남의 동정을 구한다. 이러한 굶주림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지만 이것은 결코 십자가가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가장 큰 난점은 하나님이 그의 희락이 아닌 것이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밖에서 희락을 구하게 된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밖에서 안위를 구한다는 것이다. 이것을 쓸개 탄 포도주라 부른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필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고통을 받을 때 세 가지 다른 느낌을 가질 수 있다. 어떤 사람은 그의 느낌이 다른 사람을 향하고, 어떤 사람은 그의 느낌이 안으로 향하고, 어떤 사람은 그의 느낌이 밑으로 향한다. 다른 사람을 향하는 것은 화를 내고 원망하고 용서하지 않는 것이다. 안으로 향하는 것은 상처를 받아서 자신을 동정하여 자신은 주님을 따르고 있고 주님이 고통받았던 것과 매우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밑으로 향하는 것은 억지로 느낌을 밑으로 누르는 것으로서 그 결과는 소극적으로 변한다. 우리는 매우 쉽게 화를 내고, 쉽게 자신을 동정하고, 쉽게 소극적으로 되어 버린다. 하나님의 자녀들 중 어떤 사람들은 소극적인 것을 승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소극적인 사람의 느낌에도 역시 쓸개 탄 술을 바라는 원함이 있음을 모르고 있다. 소극적인 것도 상처를 받았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다. 사람이 안에서 실망했기 때문에 소극적인 것이고, 사람의 요구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소극적인 것이다. 소극적인 것은 십자가가 없음을 증명하는 것이고, 느낌을 억지로 아래로 억누르는 것일 뿐이다. (同 138~139쪽)

☞ ☞ ☞ ☞ ☞ **수요일** ☞ ☞ ☞ ☞ ☞

아침부흥을 위한 말씀

📖 **고린도후서 4:11, 15**

11.우리가 산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15.모든 것을 너희를 위하여 하는 것은 은혜가 많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함이라

감동과 진리를 위한 읽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체험이 아닌 것

하나님의 자녀 중에서 고통을 받지 않는 사람은 없지만 진실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는 사람은 결코 많지 않다. 그들이 고통을 받을 때에는 몇 가지 다른 표시가 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므로 고통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표면상으로 한 마디 말도 없이 정말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리스도인 같지만 남모르는 곳에서는 원망의 말을 한다. 이와 같은 사람은 항상 고통을 받은 후에 많은 원망이 있는 사람이다. 그는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아직 모르는 사람이다. 이와 같은 사람은 안에 고통의 느낌이 충만하기 때문에 쓸개 탄 포도주가 필요한 것이다.

어떤 사람은 고통을 받아도 원망을 하지 않는다. 말로나 마음로나 원망은 없지만 울음은 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십자가는 피를 흘리고 자신을 버리는 곳이다. 십자가는 눈물을 흘리고 자기를 동정하는 곳이 아니다. 자신을 동정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십자가를 아는 사람이 아닌 것이다. 우는 것은 차마 자신이 고통을 받지 못하겠다는 뜻이다.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만이 울 뿐 십자가에서는 눈물이 없다. 약간의 고통을 받으며 곧 상처를 받고, 약간의 손해를 받으면 곧 손해를 느끼는 사람은 아직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이다.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스스로 만족하고 득의해 하는 사람으로, 거짓으로 승리하는 체 하는 사람이다. 이와 같은 사람도 십자가에 못박힌 사람이 아니다. 왜냐하면 그의 그러한 표시도 사람의 주목을 받으려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는 사람들에게, 『내가 비록 고통을 받지만 나는 아직도 찬송을 부를 수 있고 찬미할 수 있다. 나는 십자가를 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다. 그의 이와 같은 태도는 사람의 칭송을 받으려 하는 것이다. 이것 또한 쓸개 탄 포도주이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다.

어떤 사람은 십자가의 실체는 없으면서 십자가를 매우 잘 말할 줄 안다. 그는 이것도 십자가의 체험이요 저것도 십자가의 체험이요, 이렇게 당한 일도 십자가이고 저렇게 당한 일도 십자가라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사람이 바라는 것은 사람의 공홀이다. 그의 마음이 괴로와 하는 것은 다른 것보다도 그를 공홀히 여기는 사람이 없는 데 있다. 그의 눈이 계속 주변을 향하며 바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와서 그를 공홀히 여기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람도 쓸개 탄 포도주를 마셔야 할 사람이지 십자가에 못박힌 사람이 아니다. (워치만 니 전집 2집 제17권 제18장 『십자가와 쓸개 탄 포도주』, 139~140쪽)

고린도후서 1:3-4

- 3.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 4.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써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사도행전 7:59-60上

- 59. 저희가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 60.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
감동과 진리를 위한 읽기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체험

그러면 무엇을 십자가라 하는가? 십자가는 느낌이 다른 사람을 향하는 것도 아니고, 안으로 향하는 것도 아니고, 밑으로 향하는 것도 아니다. 십자가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받는 것이다. 십자가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선택한 길이 모두 좋은 길임을 감사 드리며 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십자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나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나 자신은 아무렇지 않은 것이다.

십자가는 능히 용서할 수 있는 것이고, 스스로를 긍휼히 여기는 것이 아니고, 소극적인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는 오직 한 가지 느낌, 즉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것만이 있기 때문이다.

십자가는 하나님 앞에서 온유한 마음을 갖는 것이고,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요구하시든지 모두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큰 분임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이 사랑임을 아는 것이다.

참으로 십자가를 지는 것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존경하도록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람의 긍휼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사람의 긍휼을 구하고, 사람의 안위를 구할 때 거기에는 단지 쓸개 탄 포도주가 있을 뿐 십자가는 없다. 우리의 주님은 십자가에서 못박히셨고, 십자가는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는 곳이 되었다. 주님의 십자가는 해골의 곳-골고다에 있었지만, 골고다-해골의 곳이 우리의 주님에 대한 찬미의 중심지로 변했다. 어떤 형제는 주님을 위하여 거기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을 위하여 그의 손이 되고 발이 되려 한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십자가의 고통을

받고 있으면서도 계속 이것을 원하고 저것을 원한다면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주님이 쓸개 탄 포도주를 거절한 것은, 그분이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았음을 말한다. 그분은 왜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았는가? 그분 안에 이미 하나님의 기뻐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십자가는 안에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안위할 수 있다. 바울은, 『우리의 모든 환란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써 모든 환란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고후 1:4)라고 말했다. 바울 같은 사람은 능히 다른 사람을 안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의 안에는 그를 만질 수 있는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환란 중에서도 능히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찬송한 것을 볼 수 있다(행 16:25). 이 두 사람은 쓸개 탄 포도주가 필요 없는, 참으로 십자가에 못박힌 사람들이었다. 또한 스테반이 그러했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의해 돌로 맞을 때에도 하나님께 그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구할 수 있었다(행 7:59-60). 그에게는 자신을 위한 고통의 느낌이 없었기 때문에 쓸개 탄 포도주가 필요 없었다. 그는 참으로 십자가에 못박힌 사람이다. 십자가는 어떠한 고통과 어떠한 어려운 일이 당신에게 떨어진다 해도 그것에 의하여 침해받지 않고 도리어 찬송할 수 있는 것이다. 당신이 만약 거기에서 계속 무겁고 어려운 것을 느낀다면, 이것은 십자가가 없는 것이다.

우리가 매일매일, 무엇이 십자가인지를 알고 쓸개 탄 포도주를 필요로 하지 않게 되도록 하나님께 구하자.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고 찬미할 수 있도록, 쓸개 탄 포도주를 구하는 데에서 벗어나도록 하나님께 구하자. (同, 140~142쪽)

☞ ☞ ☞ ☞ ☞ **금요일** ☞ ☞ ☞ ☞ ☞

아침부흥을 위한 말씀

📖 로마서 8:16-18

16.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17.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18.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히 비교할 수 없
도다

감동과 진리를 위한 읽기

영광에 이르는 노정-예루살렘으로부터

1. 우리가 십자의 길을 택할 때 다른 이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음

『사마리아인의 한 촌에 들어갔더니 …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
시는 고로 저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눅 9:52-53). 사마리아인들
은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의 이유인 주님이 예루살
렘으로 가시기 때문이었다. 언제든지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십자가
의 길을 간다면 사람들은 당신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께 우리로 하여금 날이 갈수록 더욱 그분의 뜻을 원하게 해 주시기를 간구
해야 한다. 비록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하더라도 주님은 이 일을 알고
계신다. 그때 두 명의 제자가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고 복수하려는 마음이
생겼다. 그러나 주님은 도리어 몸을 돌이켜 두 제자를 향하여 꾸짖으시며
너희의 영이 어떠한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다. 언제든지 우
리가 사람들에게 거절을 당할때 심판대 앞에서 누가 옳으냐를 보라고 말한
다면 주님의 책망을 받게 될 것이다. 주님은 다른 촌으로 가자-주님은 사
람들의 이러한 대우를 상관할 시간이 없으셨다-고 말씀하셨다.

2. 십자가의 체험은 더 깊고 풍성한 체험을 얻게함

『예수께서 각 성 각 촌으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
더니』(눅 13:22).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들림받아 승천할 때가
가까왔으니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왕국의 강림을 기다리라는 것
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이다. 노선이 이러하지만 일상의
일을 중지할 수 없다. 주님은 각 성 각 촌으로 다니며 가르치셨다. 만일 십
자가가 우리 안에서 충분히 역사했다면 많은 일들은 우리의 체험이 깊어지
고 풍성해 질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3. 교활한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지할 수 없음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
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가라사대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 삼일에는 완전하
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일이 없느니라』(눅 13:31-33). 여기서 주님은 아주 엄중하게 말씀하셨는데 헤롯이 여우라는 것이다. 주님은 여기서 헤롯을 들어서 하나님과 함께 비교하셨다. 하나는 땅의 군왕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말했고 또 하나는 하늘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임을 말했다. 헤롯과 하나님을 비교할 때 헤롯은 하나의 여우일 따름이다. 여우의 교활함도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을 저지하는 데는 무력하다. 주님은 한마리의 여우의 말을 듣고서 가지 않으실 수 없으며 헤롯이 태도를 바꿈으로 인하여 노선을 바꿀 수 없으시다. 주님은 『내가 갈 길을 가야하리라』고 말씀하셨다.

4. 노선상에 할 일이 있다면 마땅히 하여야 함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에서는 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시면서 사마리아와 갈릴리를 지나기실 때 열 명의 중풍병자를 고치셨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 이 노선상에서 만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복음전하는 것이나 사람을 도와서 사람들로 유익을 얻게하는 것을 막론하고 다만 이 길에 있다면 우리는 늘 힘써 해야 한다. 주님은 예루살렘을 정확히 보셨지만 이 길에서 무엇을 만났을 때 곧 그것을 하셨다. 그분은 결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으로 인하여 아무것도 제쳐놓고 하지 않으신 적이 없었다. 다만 우리는 마땅히 길에서 만나는 일로 인하여 방향을 바꾸지 않아야 하며 만나는 일로 인하여 붙잡혀서 걸음을 멈추고 전진하지 않는데 이르지 않아야 한다. 우리는 마땅히 일을 해야 하며, 사람을 구원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노선은 반드시 예루살렘에 이르러야 한다. 만일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저지하는 것이 있다면 이 일은 반드시 중지되어야 한다. 만일 주님이 이 길에서 열 명의 중풍병자 고치는 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 가지 않는다면 여기서 멈추는 것이다. 그분은 사마리아에 있는 모든 중풍병자를 고치실 수가 있지만 그러나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다. 그리스도인이 죄인을 구원하고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에 방해를 받아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지 못하게 한다면 마땅치 않다. 이러한 일들은 다만 이 길에서 부수적으로 할 수 있을 뿐이다. 휴거를 기다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 길에서 진력하여 사람을 구하는 것도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다. 계시록 22장 17절에서 말하는 것은

아주 의미가 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할 것이요』. 이 두 곳의 오라고 말하는 것은 성령과 교회의 하나의 기도로써 주님이 빨리 오시기를 구하는 것이다. 이어서 아래에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고 말하는 데 여기서 주님이 오시기를 구한 후에 이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우리가 세상에 있을 때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바란다. (위치만 니 전집 1집 제19권, 제13장 『영광에 이르는 노정-예루살렘으로부터』, 215~217쪽)

☞ ☞ ☞ ☞ ☞ **토요일** ☞ ☞ ☞ ☞ ☞

아침부흥을 위한 말씀

📖 **고린도후서 4:16-18**

- 16.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 17.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 18.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간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 감동과 진리를 위한 읽기

5. 십자가의 길을 홀로 택하는 것은 만족스럽지 않음

『예수께서 열 두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 가노니』 (눅 18:31). 주님은 내가 간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간다고 말씀하신다. 우리 한사람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은 부족하며 마땅히 사람을 권하고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여 십자가를 지고 앞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한다. 우리는 어떻게 들림받기를 기다릴 것인가? 맥킨토쉬(C. H. Mackintosh)는 『우리가 주님이 오실 것임을 믿는 것이 한가지 일이지만 우리가 그분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것도 또한 하나의 일이다.』 라고 말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신조로만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믿기를 원치 않으시고 우리가 그분의 아들의 오심을 기다리기를 바라신다. 하나님이 교회를 위하여 정하신 모든 것을 교회는 마땅히 다 통과해야 한다. 에베소서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 그러나 또한 책임도 충만하다. 하나님이 만일 정하신 것을 얻지 못하신다면 그분은 만족하실 수 없다. 『선지자들로 기록된 모든 것들이 인자에게 승하리라』 (눅 18:31).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정한 모든 것들은 다 우리에게 이루시기를 원한다.

6. 들림받기 전에 더 무거운 십자가가 있을 것임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라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 (눅 19:11-27). 이것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고 주님은 이때 왕이 되실 줄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님이 그들에게 말해준 것은 도리어 십자가에 죽으심이었다. 먼나라로 가는 것은 바로 하늘로 가는 것이다. 들림받는 것이 가깝고 부활하기 전에는 반드시 더 큰 고난을 통과해야 하며 환경은 더욱 어두워질 것이다. 지금 이미 재난의 그림자가 있는 것 같다. 들림받기 전에 반드시 하나의 더욱 무거운 십자가가 있을 것이다.

7. 우리를 앞서서 인도하시는 예수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눅 19:28). 그분은 우리를 데리고 앞서서 길을 가셨다. 지난 일년 동안 그분은 예루살렘으로 향하셨으며 지금도 그분은 여전히 이러하며 조금도 변함이 없으시다. 그분은 우리에게 가라고 명하시지 않으셨다. 그러나 그분 혼자서 가지도 않으시고 그분을 우리를 데리고 가셨다.

8.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복함

주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신 이후 우리는 그분이 매일 낮에 성에 들어가 시고는 저녁에 감람산으로 돌아와 유숙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는 그분이 마지막 밤 겟세마네의 기도를 보자. 『아버지여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 다시 두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 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마 26:39, 42). 어떤 사람은 잔을 겟세마네의 죽음을 가리킨다고 말한다. 이러한 해석은 꼭 그러한 것은 아니다. 바꾸어 말한다면 만일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 그분이 십자가로 가지않게 해달라고 구한 것이다. 그러나 주님은 또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오직 당신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다. 주님은 『만일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실 수 있었지만, 주님은 『할만

하시거든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수는 없었다. 잔이 물론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잔과 하나님의 뜻은 또한 차이가 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보다 더욱 중요한 것이다. 주님은 두번째의 기도에서 십자가와 하나님의 뜻을 연결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그분이 순복한 것은 그분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이다. 먼저 그분은 선택할 수 있었고 후에 잔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난 후 그분은 순복했다.

9. 영광에 대한 영적 이상은 십자가를 지고 죽음으로까지 신실하게 주님을 따르는 것임

형제들이여, 무엇이 변화산인가? 변화산은 바로 영광이며 부활과 들림받은 후의 영광이다. 그러나 변화산은 영광을 나타낼 뿐 아니라 또한 하나의 계시이며, 하나의 이상이며, 하나의 명백한 안목이다. 변화산이 계시한 영광에 이르는 노정은 반드시 예루살렘을 거쳐야 한다. 우리는 지금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고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외에는 들림받는 것을 바랄 수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이 변화산의 계시와, 이상과, 안목이 필요하다. 장래의 영광을 알고서 어떻게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지를 알 수 있는 계시를 얻지 못했다면 여전히 소용이 없는 것이다. 다만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영적인 이상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들림받는 것과 하나님의 뜻과의 관계를 알게 하시기를 바라며, 다만 우리가 이러한 안목이 있을 후 참으로 충성스럽게 죽음에 이르도록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기를 원하며, 다만 우리가 충분히 우리의 주님과 같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해 갈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가 바울이 말한 것과 같이 내가 하늘에서 보이신 이상을 거스리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란다.

영광은 장래에 있지만 고난은 여기에 있다! 들림받을 날이 가까웠지만 그러나 먼저는 십자가를 통과해야 한다. 들림받은 날은 가까웠지만 그러나 하나의 부르심이 있는데 바로 우리가 전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것과 하나님을 순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주님이 들림받아 승천하신 길이다! 들림받아 승천하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 그러나 예루살렘 또한 정해진 것이다. 들림받자마자 모든 것을 다 벗어난다. 언제든지 주님과 고난을 당하는 체험이 많은 그때가 주님이 우리와 가장 친밀할 때이다. 주님이

우리와 친밀함을 느낄 그때는 바로 우리가 주님과 고난을 당할 때이다. 주님은 앞에서 우리는 뒤에서, 결국 우리는 마땅히 주님을 따라 이 길을 완주해야 한다. (워치만 니 전집 1집 제19권, 제13장 『영광에 이르는 노정-예루살렘으로부터』, 218~220쪽)

◆ 추구 자료 ◆

1. 워치만 니 전집 1집 제19권, 제13장 『영광에 이르는 노정-예루살렘으로부터』
2. 워치만 니 전집 2집 제17권 제18장 『십자가와 쓸개 탄 포도주』

제 3 부: GTA 권속 교통

교회 생활 안에서의 체험

주님의 뜻을 즉각 따를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할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저는 이 공과를 기꺼이 배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저를 버리시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기다리소서! 당신께 순종하겠습니다.』

기도의 부담

1. 중국어 훈련집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께서 타이티스 추 형제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 청소년을 위한 IGNITE 특별 집회에 각처에서 많은 수가 참석케 되며 중국어 훈련집회에 연이어 있습니다. 모든 봉사하는 자들과 숙소를 위하여 가정을 연것과 청소년들을 위하여 기도바랍니다.

소식 및 안내

집회 안내

Hall 3 주일 집회 시간표

10:00am – 10:30am : 주의 만찬

10:30am – 11:00am : 다과와 친교 시간

11:00am – 12:00pm : 찬양 및 찬송과 메시지

【집회 시간 및 집회소 안내】

Lord's Table	Hall 1,2 & 3	Sunday, 10:00 AM	Hall 1	671 Sheppard Ave. E., Toronto, ON M2K 1B6 (416) 221-7610
Young People	Hall 1	Saturday, 7:00 PM	Hall 2	24 Cecil St., Toronto, ON M5T 1N2 (416) 977-5588
College Meeting	Hall 2	Friday, 7:00 PM	Hall 3	7 Gretna Ave., Toronto, ON M4A 2H5 (416) 757-7117
Grade 6 Meeting	Hall 1	Saturday, 7:00 PM	자매집회	매주 목요일 오전 11:00 (한국어 자매 집회)
Prayer Meeting	Hall 1 & 3	Tuesday, 7:30 PM	소그룹1	매주 화요일, 오후 11:00시 (한국어 가정 소그룹1)
	Hall 2	Tuesday, 7:00 PM	소그룹2	매주 수요일, 저녁 7:00 (한국어 가정 소그룹2)
Homepage	www.churchintoronto.org		Home2	www.thechurchintoronto.ca

(이 아침부흥지는 영어 아침 부흥지를 번역한 것입니다. 영어 아침 부흥지는 www.thechurchintoronto.ca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